제주체육상 '대상' 김락훈 자전거 지도자

도체육회, 체육상 수상자 확정… 23일 시상식
사격 오예진·강서윤 다이빙 감독 등 최우수상

올해 제주의 자전거가 최고의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힘을 쓴 김락훈(사진) 지도자가 2022 제주특별자치도체육상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회장 부평국)는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체육상 체육 대상에 제주영주고등학교 소속의 김락훈 전임지도자가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김락훈 전임지도자는 올해 열린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자전거 경기에서 영주고가 금 1, 은 3, 동 2개를 획득하게 하는가 하면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를 비롯한 2022년 각종 전국대회에서 금 14, 은 10, 동 17개를 지도하며 제주의 명예를 드높이는 등 제주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체육상 최우수상은 총 4개 부문에서 경기부문인 경우 사격 오예진(제주여상)을 포함해 ▷지도부문 수영 강서윤 감독(제주도청) ▷ 심판부문 레슬링 이승종 전임지도자(제주도체육회) ▷생활체육부문에 바둑 부원칠 부회장(제주도바둑협회)이 선정됐다.

수상 대상자는 지난 11월 24일까지 회원단체 및 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아 도체육회 제17차 스포츠공정위원회(12월 7일)에서 선정, 의결돼 20일 제15차 이사회에 보고 후 최종 확정됐다.

도체육회는 이에 따라 오는 23일 오후 6시 메종글래드 제주 컨벤션홀에서 2022 제주특별자치도체육상 시상식 및 체육인의 밤을 갖고 격려할 예정이다. 이번 시상식은 그동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온라인으로 비대면 축소 개최하다가 3년 만에 정상 개최되는 것이다.

다음은 2022 체육상 수상자 명단.

▶**우수상**=댄스스포츠 허현아(신성여고), 배드민턴 사대부고, 수영 고현주(제주도청), 이예주(한라중), 역도 김수경(제주도청 감독), 철인3종 강철호(도협회 감사), 축구 김민철(대한축구협회 심판), 그라운드골프 김수철(도협회 부회장), 육상 한동섭(도연맹 이사), 족구 신재현(도협회 이사), 곽해봉(제주시수중핀수영협회 회장)

▶**장려상**=현충호(제주대), 김형택(도보디빌딩협회), 고홍구(제주관광대), 이호상(남녕고), 김홍유(위미중), 이동현(남녕고), 조하선(중문중), 강민국(제주국제대), 도남초 축구, 이경학(제주도청), 이숙미(동광초 지도자), 홍영옥(제주여상 지도자), 박현우(도체육회 전임지도자), 문송희(도체육회 전임지도자), 김성주(도검도회 이사), 김진숙(도협회 심판위원), 박철생(도연맹 감사), 정용기(도협회심판위원), 민갑호(도연맹 시설이사), 박선영(도협회 부회장), 김근범(제주시축구협회 사무국장), 오창국(서귀포시롤러스포츠연맹 부회장), 송정곤(삼무검도관 관장), 이선영(도국학기공협회 지도자), 송용학(도보디빌딩협회), 김대철(도볼링협회 이사), 부복조(제주시수영연맹 이사), 강용관(직장야구운영위원회 운영이사), 고춘승(미르유도체육관 관장), 자전거 어울림동호회, 이종필(한라철인클럽 훈련부장), 오영준(제주시사라축구회 회장)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2023 프로야구 4월 1일 막 올린다

KBO, 내년 시즌 정규리그 일정 확정 발표

내년 시즌부터 프로야구 2연전이 폐지되고, 개막전은 4월 1일 열린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내년부터 2연전이 폐지되는 2023시즌 정규리그 일정을 20일 확정했다.

2023 KBO 리그 정규시즌은 4월 1일(토) 개막해 팀당 144경기씩 총 720경기가 열린다.

2연전 편성이 내년부터 폐지됨에 따라 개막전을 제외한 모든 경기가 3연전으로 편성됐다. 이 경기들은 9월 10일까지 팀당 134경기가 우선 편성됐고, 미편성된 45경기 및 개막전 대진 5경기가 포함된 50경기(팀당 10경기)는 우천 등으로 취소되는 경기들과 함께 추후 편성될 예정이다. 또 구단간 홈-원정 경기의 편성이 기존 홈, 원정 각각 8경기씩에서 홈 9경기-원정 7경기 또는 홈 7경기-원정 9경기로 변경됐다. 최종적으로, 팀간 이동거리 및 마케팅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격년제로 홈 73경기-원정 71경기로 편성됐다. 이에 따라 2023년에는 SSG, KT, 롯데, 두산, 한화가, 2024년에는 키움, LG, KIA, NC, 삼성이 홈 73경기-원정 71경기로 편성된다.

개막전은 2021년 최종 팀 순위 상위 5개 팀의 홈 경기로 편성돼 잠실 롯데-두산, 고척 한화-키움, 문학 KIA-SSG, 수원 LG-KT, 대구 NC-삼성 2연전으로 시작을 알린다. 4위 LG는 2위 두산과 구장 중복으로 원정 경기가 편성됐고, 6위 SSG의 홈 경기가 편성됐다.

5월 5일 어린이날 경기는 격년제 편성 원칙에 따라 잠실(LG-두산), 고척(SSG-키움), 대전 (KT-한화), 사직(삼성-롯데), 창원(KIA-NC) 구장에서 경기가 펼쳐진다.

2023 KBO 올스타전은 7월 15일 개최 예정으로, 7월 14일부터 20일까지 올스타 브레이크 기간을 가진다. 9월 중 개최 예정인 항저우 아시안게임 기간에도 KBO 정규시즌은 중단되지 않고 진행된다. 조상윤기자

한국, 카타르 월드컵서 최종 16위

일본 9위·네덜란드 5위… 개최국 카타르 꼴찌

한국 축구가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에서 최종 16위에 자리했다.

지난 19일(한국시간) 카타르 월드컵이 막을 내린 가운데, 국제축구연맹(FIFA)이 매긴 최종 순위에서 한국은 16강 진출 팀 중 가장 낮은 순위에 자리했다.

월드컵 최종 순위 중 1~4위는 결승전과 3, 4위 결정전에서 가려지고, 그 외 순위는 같은 단계에 오른 팀들끼리 승점, 골득실, 다득점 순으로 우열을 가린다.

우루과이와 조별리그 1차전에서 0-0 무, 가나와 2차전에서 2-3 패, 포르투갈과 3차전에서 2-1 승, 브라질과 16강전에서 1-4 패를 기록한 한국은 16강 진출 팀 중 가장 낮은 16위에 자리했다.

역시 16강에 오른 일본은 16강에서 탈락한 팀 중 가장 높은 9위에 자리했다.

일본은 조별리그에서 독일과 스페인을 잡고 코스타리카에는 져 2승 1패를 기록했다.

16강전에서는 크로아티아와 승부차기 끝에 졌는데, 승부차기 패는 무승부로 기록하기 때문에 일본은 최종 2승 1무 1패를 기록했다.

이는 이번 대회 16강 탈락한 팀 중 최고 성적이다.

8강까지 오른 팀 중에서는 네덜란드가 가장 높은 5위에 올랐다.

실리 축구를 펼친 네덜란드는 이번 대회에서 한 번도 지지 않고 3승 2무를 기록했다.

개최국 카타르가 전체 꼴찌의 불명예를 안았다. 카타르는 함께 3전 전패로 조별리그 탈락한 캐나다와 꼴찌를 다퉜다. 골 득실에서 -6을 기록한 카타르가 -5인 캐나다에 밀려 최하위가 됐다. 연합뉴스

조금만 더 샬럿 호니츠의 가드 켈리 우브레 주니어(12)가 19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에서 열린 NBA 농구 경기 후반전에서 새크라멘토 킹스의 포워드 도만타스 사보니스(10)를 제치고 슛을 하고 있다. 한편 이날 경기는 샬럿 호네츠가 125-119로 승리했다. 연합뉴스

'바람의 손자' 이정후 미국 진출 공식 선언

류현진·김하성 몸값 넘을 수 있을지 관심

프로야구 간판타자 이정후(사진·24·키움 히어로즈)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진출을 선언하면서 그의 몸값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정후는 류현진(현 토론토 블루제이스), 김하성(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을 뛰어넘고 최고의 대우로 미국 땅을 밟을 수 있을까.

KBO리그 선수들의 MLB 진출 역사는 류현진 진출 전후로 나뉜다. 2012년 한화 이글스에서 뛰던 류현진은 포스팅시스템을 통해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6년 3000만 달러에 계약했다.

연평균 500만 달러를 받는, 당시로선 파격적인 대우였다.

류현진이 받은 계약 총액은 현재까지 깨지지 않고 있다.

타자 중에선 김하성이 가장 높은 대우를 받고 갔다. 키움에서 2020시즌까지 뛴 김하성은 포스팅시스템을 통해 샌디에이고와 4년 2800만 달러에 계약했다.

이정후가 총 규모 3000만 달러, 연평균 700만 달러 이상의 계약을 맺으면 역대 최고 대우를 받는다고 평가받을 수 있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최근 MLB FA 시장은 과열 증상을 보이며 수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계약이 빈번하게 체결되고 있다.

현지 반응도 뜨겁다. MLB닷컴은 이정후가 미국 진출을 선언한 다음 날인 20일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이정후가 다음 스토브리그를 뒤흔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수 축 훈 CONGRATULATIONS

베트남사회과학한림원
사회과학사업 기념 훈장

김 성 범
(아시아인문재단 해양문명원장)
수운교 안덕지부장 대호 김영호 子

베트남사회과학한림원이 한국과의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베트남 관련 문화 및 학술 연구활동을 해 온 공로로 한국인 연구자 처음으로 **사회과학사업 기념 훈장 수훈**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수운교 일도지부 교인 일동

수 축 훈 CONGRATULATIONS

베트남사회과학한림원
(사회과학사업 기념 훈장)

김 성 범 박사
(아시아인문재단 해양문명원 원장)

베트남사회과학한림원이 한국과의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베트남 관련 문화 및 학술 연구활동을 해 온 공로로 한국인 연구자 처음으로 **사회과학사업 기념 훈장 수훈**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벗 일동

수 축 상 CONGRATULATIONS

제주특별자치도문화상
(교육부문)

한 경 찬
사)한국평생교육사 제주특별자치도협회 회장

제주특별자치도문화상(교육부문)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제일중학교 제20회 동창회
회 장 강 원 효 외 회원 일동

수 축 상 CONGRATULATIONS

제주특별자치도문화상
(교육부문)

한 경 찬
사)한국평생교육사 제주특별자치도협회 회장

제주특별자치도문화상(교육부문)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사)동려 회원 일동